

“약사여래불 탱화 대신 봉안하길...”

원로서예가 이성조 거사, 남화사에 60폭 화엄경 병풍 범보시

원로서예가 남석(南石) 이성조(72) 거사가 구미 남화사(주지 성화)에 60폭 짜리 대형 병풍을 범보시해 미답이 되고 있다.

이를 기념해 구미 남화사는 7월 15일 '화엄경 병풍 봉안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이 거사의 '보광명전' 현판을 비롯해 석계 김태균 씨의 '안심요' 현판, 심천 한영구 씨의 '법화당' 현판, 일정 이창수 씨의 '남화사' 현판을 혜각 이주강 씨의 서각으로 제작한 현판식도 함께 가졌다.

이번에 이성조 거사가 보시한 병풍은 '화엄경 보현행원품(普賢菩薩行願品)' 5492자를 써넣은 가로 27.3m, 세로 2.3m 크기로 갑골문자나 죽간 등에서 볼 수 있는 고문자인 금석문(金石文)으로 쓰여졌다. 병풍은 20여 년 전 청와대가 이 거사에 의뢰해 3년에 걸쳐 제작한 뒤 그가 소장해 오던 작품으로 전문가들은 그 가치를 수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 거사는 남화사가 보유한 석조약사여래좌상



이성조 거사의 그의 작품 '퇴계 선생 성학심도' 12폭 병풍.



상이 지난해 11월 경북도 문화재(제 544호)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기념해 아무런 대가없이 이 병풍을 기증하게 됐다. 이 거사는 “우연히 남화사에 들렀다가 신라시대 후반에 조성된 석조약사여래좌상을 보고 불자로서 큰 감화를 받았다”며 “하지런 뒤에 탱화 하나 없는 불상

이 허전해 보여 이를 기증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거사는 지금까지 '화엄경 보현행원품'으로 여러 차례 병풍을 제작했으며 해인사 백련암, 미국 뉴욕 원각사, 부산 육천사 등에 그의 작품이 소장돼 있다. 이 거사는 또 글자수 7만자, 길이 120m의 168폭 범화경 병풍을 완성(2007년 고희 기념전)해 주목을 받았으며, 이어 270자 반야심경을 사경, 5년간 2000여 점의 작품을 완성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38년 경남 밀양에서 출생한 이 거사는 18세 때 예제봉 선생을 사사, 서예계에 입문했다. 부산사범대 미술과를 졸업하고 1959년 제8회 국전에 최연소로 입선된 후 국립현대미술관 초대 작가(1985년)로 선정됐으며 대구시 문화상(1991년)등을 수상했다. 특히 1981년 미국에서 열린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전(LA)에서 한국예술계를 대표하는 1인으로 초대된 바 있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불모 최문정씨 서양화로 국전 '입상'

“전통불화의 창조적 계승·불교 미학 담은 서양화 하고파”

단청 및 탱화를 그리는 지은 최문정(40) 불화가가 대한민국미술대전(이하 국전)에서 서양화로 입상해 화제다.



7월 10~18일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본관에서 열린 대한민국미술대전 본전시회에 참석한 최문정 불화가와 그의 작품 '남심'.

10여년간 단청장 전수교육조교'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문정 불화는 7월 8일 불화가 아닌 '남심(南心)'이란 비구상화로 국전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통불화와 한국화, 서양화의 기법과 혼합재료가 창조적으로 재구성된 '남심'은 강진 남미륵사의 관음전 단청작업을 하면서 느낀 환희심과 남해의 아름다움, 따뜻한 인정에 매료되어 형상화된 작품이다.

최문정 불화는 “탱화와 단청은 물론 한국화, 벽화 등을 그리며 배운 기법과 정신상태를 현대미술의 비구상화를 통해 표출한 것이 국전의 인정을 받게 되어 기

쁘다”며 “앞으로도 전통불화의 창조적인 계승과 더불어 불교적인 사상과 미학을 담은 서양화 작업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올초부터 현대불교신문에 연재중인 해암선사의 일대기를 그린 정찬주 소설 '가야

산 정진불'의 삽화를 그리고 있는 최문정 불화는 현재 강진 남미륵사의 관음전과 민불전 단청작업에 비지땀을 쏟고 있다.

이화여대,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을 거쳐 고려대 정책대학원 CRO 과정을 이수한 최문정 불화는 경주 골굴사와 보신각 종각, 수안보 흥천사, 보라매 공군법당 등 50여 곳의 단청과 경주 불국사 무설전 지장명화, 서울 초심사 104위 신증명화 등을 그리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김성우 기자

송민 이주형 서예전

'운주사 와불님' 등 전시

‘송민(松民) 이주형(李周炯) 서예전’이 7월 16~22일 서울 백악미술관에서 열렸다.



경기대 이주형 대우교수(미술디자인대학원 전통예술학과 서화전공·사진)는 이번 서예전에서 ‘공허(空虛)’ ‘운주사 와불님을 빗고’ ‘버리고 비우는 것은’ 등 65점의 한글 및 한문 서예작품을 전시해 호평을 받았다.

송하경 상근관대 명예교수(한국서예 비평학회)는 “사사로운 마음을 비우고 무아(無我)의 경지에 든 사람은 결순하다”며 “송민의 서예가 기세 당당하고 자체(字體)가 의연하며, 변화를 시도하는 용기가 있고, 전통과 시대를 아우르며 그 참신성을 잃지 않는 까닭은 송민의 미학적 원형 사유로서의 ‘결순’에서 찾을 수 있다”고 평했다.

김성우 기자

아카데미 선그림 단청 특별강좌

어린이 미술체험 특강도...



박경기 선불화공방 원장(사진 오른쪽)이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전통불교미술 교육단체인 '아카데미 선그림'이 오는 10월에 있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단청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 하고자하는 이를 위해 단청특별강좌를 개설한다.

7월 24일부터 3주간 서울 삼청동 선-아트스페이스에서 진행되는 강좌는 체계적인 단청이론과 실기를 교육해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아카데미 선그림'은 7월 31일부터 2박3일간 김상사 어린이 여름수련회에 미술과 놀이행식을 결합한 어린이 미술체험프로그램으로 특강을 실시한다.

박경기 선불화공방 원장(문화재수리기술자 443호)은 “아카데미선그림은 앞으로 사찰수련회나 템플스테이 등에 전문적인 미술체험프로그램 개발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흡수해 불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02) 732-0732 김성우 기자

“깨달음향기 대중에 전달되길”

정여 스님 서화전 대구서 열려

선 수행과 종무행정, 두 분야에서 이사무에(理事無碍)한 보살행을 펼치고 있는 법어사 주지 정여 스님의 서화전(禪書畫)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는 7월 15일 오후 2시 옥봉보전 6층 갤러리에서 '정여 스님 서화전'을 연다. 8월 14일까지 전시되는 이번 서화전에서는 서화 16 작품이 공개돼 선 수행의 묘미와 맛을 간접적이나마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여 스님은 “여여(如如)란 부처님 마음처럼 때 묻거나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며 “언제나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게 하는 마음자리를 깨우쳐 주는 것이 포교”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대관음사 갤러리가 문화를 통한 포교공간은 물론 미술인들을 위한 공간이 되길 바라며 깨달음의 향기가 대중들에게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여 스님은 1974년 법어사 벽과 스님을 은사로 출가, 법어사 전문강원 대교과 졸업, 여여선원장을 역임하고 조계종 총무원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053)474-8228 김성우 기자

대한명인전 개막

22일 대한명인 추대식도

대한명인문화예술교류회(회장 이준호)는 7월 22일 오후 2시 40분 인사동 서울미술관에서 '2009 대한민국 대한명인전' 개막식과 '제9차 대한명인 추대식'을 개최한다.

‘살아있는 혼 민족을 깨우다’ 주제로 7월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사찰벽화, 탱화, 황칠공예, 지호공예, 청자, 조소, 현판서각 등 59개 분야의 전시와 함께 국악현악기, 분청사기, 금속상감 등 12개 분야별 강의 및 시연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명인전에 처음으로 신설된 탱화분야에 사찰 김진구씨가 명인으로 추대돼 '수월관음도'와 '자비선사 법진 스님 진영'을 전시한다. 김진구씨와 더불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던 가수 서유석씨, 수묵화 분야의 일당 문형은씨, 전통난모분야의 유홍숙씨, 현판서각분야의 진산 정지완씨 등 총 29명의 문화예술인이 대한명인에 새롭게 추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명인은 공예 분야 79명, 국악 분야 46명, 음식 분야 49명, 인문 분야 27명, 총 201명이 됐다.

한편, 전통목탁분야의 보은 김덕주씨, 사찰벽화분야의 김기태씨도 참가해 작품을 선보인다. (063)652-8820 김성우 기자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기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지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지하스님 지음
135쪽 | 5,000원

**선방
일기
록**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중생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납니다. 부조리한 백팔번뇌의 인간이 조화된 열반에 이르는 길이 바로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간산대사 지음 · 대성스님 옮김
247쪽 | 8,000원

**간산
대사
자전**

마음은 본래 맑은 못과 같으나, 눈물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 성품을 혼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고민에 빠지며 번뇌를 낳는다. 그 근본 원인은 집착에 있다.

한형조 지음
333쪽 | 8,000원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만법귀일(萬法歸一) 선(禪)에서의 모든 물음은 하나로 귀착된다. “너는 대체 누구냐?”

www.HyuabulShop.com

기존의 「어시어문」이 「현불삼」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불교상품에서 일반용품, 불교도서, 음반, 각종 이벤트 등 「온라인쇼핑몰 현불삼」을 인터넷에서 만나보세요.

현대불교 현불삼 |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801-04-04678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